



차이의 문화 다름의 정치
제3회 여성문화제

차이의 문화 다름의 정치
제3회 여성문화제

ACTION! To Power of Women

여성임을 긍정하는 즐거운 반란이 시작된다



제3회 여성문화제 기획단 ▶ 후원 수원대학교 14대 총여학생회

복길이라 불리게 된 까닭은?

98. 복길

신입생 O.T.였던가 선배 손에 이끌려 총여학생회 문턱을 들어섰다. 나를 끌고 갔던 선배의 공공이가 뭔지도 모른 채 앉아서 지나가는 여자 선배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여성'이라는 얘기를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이태올로기가 뭔지도 모르는 나에게 지금에 있어서의 여성이 차지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 하며, 나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딸이 돌이고 남자라고는 아버지 한분 밖에 없는 가정 환경과 남녀공학이지만 여학교라 불리는 것이 차라리 나은 학교를 다니면서 나라는 아이가 여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모른채 그냥 그냥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나에게 참으로 이해되기 어려웠으나 놀랍고 더욱더 궁금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복길이라는 우리가 만든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전원일기에 나오는 풍수같은 복길이를 생각하면 안될것! 복길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여성운동을 하는 길 속에서 항상 좋은 일처럼 복되게 그 길을 가라는 의미에서 선배들과 동기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아직까지 나는 전원일기의 복길이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이름을 부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 과에서 여학생부를 맡으면서 총여학생회실에 들락거리다가 여성주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학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영화를 보고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씬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행사들도 꾸려가면서 힘들어서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차츰 여성이라는 '나'를 생각해보게 됐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성억압적인 사건들 특히나 성폭력 또는 여성이라는 큰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느끼게 됐다. 1학기중 성폭력에 관해 학내 선전전을 준비하면서 알게된 대학내 성폭력 사례들 속에 아마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야 할 것이가를 고민하게 했으나, T.V로만 접하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무어라고 아직까지는 꼭 짚어 이야기 할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새내기여름방학을 보내고 이제 제3회 여성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문화제 속에서 여성노동권 이라느니 성폭력 학칙제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새내기라 졸업하고 밥먹고 살심각한 고민은 없지만 졸업을 준비하는 선배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심정만 들었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시기에 칩칙한 도서관에서 그들의 희망을 준비하는 많은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 성폭력이라 문제를 좀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만큼 나눌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야기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대학 4년을 그리고 여성이라는 나의 삶이 아닌 남이되버린 삶을 그냥 그냥 보낼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보다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사는 것이 더욱 다행한 것이 아닐까?

글치림을 봅시다

여성문화제를 기획하며 1

여성 문화제, 자세한 일정을 봅시다 3

ACTION! TO POWER OF WOMEN -여성임을 글짓는 즐거운 변란이 시작된다. 5

테마1. 눈을 크게 뜨지! 그리고 이제 닫혀진 우리 노동의 권리를 말이지!

-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 노동권 확보 6
- 여대생 실업, 그 대책과 제언 12
- 한국통신 사회수동전화 교환서비스 중단을 꼭꼭 철거하라. 16
- '여성실업자 구직등록운동'을 선포하라... 17

테마2. 성폭력 학칙제정, 일상적 지치의 전면화로 지랑스런 그 깃발을 올리자!

- 일상이 되어버린 성폭력에 대한 소고 20
- 학내 성폭력 학칙제정의 중요성과 그 기능성의 모색을 위한 글 24

테마3 시선, 대중매체, 무의식... 여성의 일상적 억압의 기제를 찾아라!

여성문화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실험

- TV드라마 보고 또 보면서 안타깝기 30
- 여성의 눈으로 통화읽기 '혹실공주' 33
- '순결야나, 죽어라' 순결야테올로기를 깨뜨려라! 39
- 한편 난장을 만들자, 우하야!!! 44

이이적 한토막 '뚝갈엔' 46

이번이 제안하는 여성학 도서 48

광고

차이의 문화 다름의 정치

제3회 여성문화제

ACTION! TO POWER OF WOMEN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계 절반으로서 여성의 권리라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빼앗겼거나, 침해당했다거나의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여성권, 즉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든,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이든-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고민해본적 없는 새로운(?) 권리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권은 쉽게 말해 새롭게 구성되어지고 획득되어질, 여성주의적 질서속에서 붕괴되어질 권리인 것이다.

■ 전체 일정 및 장소

여성 문화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주간 진행됩니다. 또한 여성 문화제 기획사업으로 여성 문학상 공모전(9월 7일~10월16일), 여성학 자치강좌(10월 첫째주), 성폭력 학칙제정 공청회(10월 첫째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9월 22일)등이 펼쳐집니다.

■ 행사소개 -행사별에 따른 의미와 보는 방법

ACTION! TO POWER OF WOMEN.

테마1. 눈을 크게 뜨지! 그리고 닫혀진 우리의 노동의 권리를 말이지!

· 9월 28일, 학생회관 앞 오월광장, 십자로 ·

여성실업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설치 퍼포먼스

여성 장려예고 사례발표와 스티커 설문.

여대생 구직등록운동 및 학내 선전전 - 여대 여성실업자! 그러나 온전한 여성실업 우리의 앞지리를 보장하라!



테마2. 성폭력, 이제 외치제정의 깃발을 올리자

· 29일 학생외관앞 오월광장, 체육관앞 주차장 ·

여성 연대회의 성폭력 설문조사 발표 및 성폭력 학칙제정의 방향에 대한 거리전

성폭력 상담소 부스 설치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영화속 성폭력 - 영화상영 7시/ 성교육 자료집 배포 및 성폭력 학칙제정 책 나누어주기

테마3. 시선, 대중매체, 무의식... 여성의 일상적 억압의 기제를 찾아라!

여성문화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모색

· 1일, 2일 학생외관앞 오월광장, 여학생유 계실 카페 '다름' ·

여성의 발에 대한 역사를 보면 참으로 처참하다. 중국의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발이 크지 않게 하기 위해 신었다는 전족에 대한 상징성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한 즉, 남성의 종속적인 소유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또한 작은 발이 예쁘다는 보여지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발의 수난... 아직까지도 색시하게 보인다는 위태위태한 걸음의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의 발! 이제 자연스러움을 누리며 살자

작은 신발신고 포마아 포마아하기 / 슬리퍼 신고 달리기하기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의 포스터 카피이다. 여성의 상복에 환장한 인물로서 그리고 있지 아마?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죽고 못사는 자매간의 연까지 끊어야 하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형상화들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문화에 대한 체험! 참여 거리전 / 다시보는 드라마 - 보고 또 보고 -, 영화보고 안티결기

레모네이드 체험! - 한편 난장을 만들어보자 / 손걸 아테올로기를 펴드리자! - 손걸 외형식 및 파락제

테마4. 여성교육, 끊임없이 요구하는 억압 이데올로기 학습을 깨부수라!

여성어성임을 긍정하는 여성주의적 질서 / - 여성의 교육 이제 우리가 소멸하는 여성학 커리

학부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성학 자치강좌 / 여성학 도서 판매



ACTION! TO POWER OF WOMEN. 여성임을 긍정하는 즐거운 반란이 시작된다.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여성임을 긍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감격했던 적이 우리 - 여성 -에게 있었을까?

뒤늦게 불편 부당했고 그에 따른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는

불행과 용서 이상의 의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그에 따른 생각의 편지를

서슴없이 이야기 하기 보다는 침묵으로,

그리고 극복해보겠다 라는 의지보다 순응과 곁들여짐의 방식을 택하면서

여성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아닌 저것, 이 방식이 아니면 저렇게 라는 이분법적인 분류 속에서

항상 열등한 위치를 점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결국에게 획과 되버리고 소멸되어버릴 정도로

우라에게 조작 익숙하지 않은 여성주의적인 질서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또 현실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듯 수많은 질문과 공허한 외침만이

그 무기력한 침묵의 메아리만을 거듭하는 속에서

그리고 여성주의로서 희망으로 점철될 그런 시위를 꿈꾸는 일(!)이 일상이 되버린 지금,

조금은 이전보다 확장된 고민을 해본다.

내가 아닌 나와 우리로 존재하는, 여성으로서 함께 긍정하고 그 긍정성의 가치를

현실속에서 온몸으로 실현할

그래서 억압적 구조에 대한 여성들의 전면적인 반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다.

세롭게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져야 할 질서들,

자발적이고 비억압적인 그리고 대인적인 여성주의적 질서는

이번 3회 여성 문화제를 통해 창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이의 문화, 그리고 다름의 정치, 행동하는 여성의 power'로 그 힘있는 계막을 서두르고 있다.

은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정당화하며, 동일노동에 대하여 남녀간의 다른 임금의 격차를 인정하여 주고 사회보장제도나 공적부조에서도 성차별을 야기한다.

현재 한국의 여성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6.8%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82년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빈곤계층의 33.6%를 영세여성세대주가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도 여전히 많은 영세여성세대주가 있다. 여성과 아동의 빈곤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임금과 다양한 공적 부조의 남성중심적 성별화는 여성을 억압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세대주의 가족까지도 압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작동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족임금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가족임금은 그 자체가 가족 전체를 먹여살릴만큼 크지 않은 임금이며, 여성에 대한 착취와 또한 전체 인민

대중의 가족까지도 착취하는 수단이다. 지금 시기에 노동자들은 가족임금을 얻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얻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며, 가족임금으로 인하여 여성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일은 없어야겠다.



2) 성별분업이데올로기의 문제

성별분업이데올로기 역시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노동을 구성하고있는 성별구조를 보면, 가족이데올로기하에서 보여진 성인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의 구조속에서 여성의 일은 사회의 공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그의 가정을 책임지는 가사노동과 재생산을 위한 양육의 노동으로 규정되게 된다. 반대로 남성의 일은 사회의 공적인 일이되며 그것은 남성중심적인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여성의 일은 가정의 일이라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였을때는 그 노동자체가 부차적인 노동이며 여성에게 있어도 부차적인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에게 맞는 일은 가사노동과 병행할 수 있는 일로 한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성노동이 주변화되는 것을 정당화하고, 여성의 임금역시 그에 있어 주변적인 일이기때 많은 임금을 주기 보다는 가사를 보충하는 정도의 임금이면 족하다는 것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족임금과 맞물리면서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역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남성에게 적합한 일,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라는 공식을 세워놓고 여성은 미숙련/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분류한다. 또한 승진등에 있어에서도 여성의 승진은 남성에 비하여 늦으며, 승진 그 자체도 힘들다.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공적 노동시장내에서의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철폐하기위하여는 가사노동과 양육을 사회화시켜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동시장내에서 노동의 임의적인 구분을 없애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물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겠다.

2. 노동시장의 문화는 남성중심적

현실 사회가 남성중심적인 사회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

는 사람이 있을까? 가족이데올로기하에서 작동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는 여성을 배제하고 대상화한다. 구지 포르노등을 예로 들지 않아도 필만큼 그것은 사회전반에 깔려 있다. 이러한 여성배제나 주변화, 혹은 대상화가 노동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가사노동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전면적으로 뛰어들 수없고 가사노동과 병행할 수 있는 노동의 양태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성들의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노동시장에서 함께 일하고자 했을 때 노동의 조건(즉, 노동의 문화)에 대하여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대의 공/사의 이분법적 논리는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주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성지배문화와 규범이 아주 팽배한 곳이 바로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성은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도 힘들다.

여성이 이중노동의 고통,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의 문화에서의 주변화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사회화시켜 공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동안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되었던 공적인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여성적인 관점-여성의 신체를 존중하고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노동 메카니즘, 노동문화등-에서 재구성하는 일이다.

여성들이 이중노동의 고통,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사회화시켜 공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동안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되었던 공적인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여성적인 관점-여성의 신체를 존중하고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노동 메카니즘, 노동문화등-에서 재구성하는 일이다.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성은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도 힘들다.

여성이 이중노동의 고통,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의 문화에서의 주변화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사회화시켜 공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동안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되었던 공적인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여성적인 관점-여성의 신체를 존중하고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노동 메카니즘, 노동문화등-에서 재구성하는 일이다.

현실 사회가 남성중심적인 사회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



1)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들의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노동시장 참여가 고무되었다. 파트타임의 여성화는 이러한 전제와 방침으로 구축된 것이며 자본이 필요로 하는 저임 노동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가족이데올로기하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가사전담자의 이해관계가 결탁된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노동력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현 자본의 구조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성들의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사회의 각종 비정규직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은 국내에서 IMF를 경험하는 선발대로서 여성노동자

들에게 미리 경험되었고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위급과 같은 고용 불안의 상황에서 정규직 보신주의와 맞물려 비정규직 여성들의 계약해지와 무차별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지조차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문제점은 여성이 생존을 위하여 남성과 동등한 의미로 노동하는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러한 논리의 작동으로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우선적 해고라는 상황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남성중심화에서는 더 이상 여성이 노동을 하기 힘들고, 그러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더 이상 여성의 노동을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노동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더 이상 저임금상태에 머물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시간제 노동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중 역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간제 노동에 대한 것이다. 시간제 노동역시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더불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이라는 전제 하에 많이 행해지고 있다. 시간제 노동을 여성이 실제로 찾아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남편의 월급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에 적합한 일자리로서 적용된다. 또한 현재의 성별노동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제한된 노동시장구조내에서 취업을 원하면서도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쁜 주변적 직업으로 흡수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지금의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속에서 여성의 시간제 노동에 대한 제정의가 필요할 듯하다. 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루 8시간씩 노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은 묵시적으로 가사노동이 전업주부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전일제 노동모델은 개인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자녀 양육제도를 갖추고 있건 간에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부적합하다.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한 노동시간의 개념은 그 자체로 타당한지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사고하면서 진행되는 전일제 노동시간 개념은, 여성의 노동을 담보해주지 못할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것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노동시간 개념에 대한 제정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더불어, 그리고 사적 필요를 충족해 줄수 있는 것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3. 가족이데올로기를 해체하라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과 정리해고등의 문제가 가족이데올로기의 작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이데올로기는 자본이 일국가를 넘어 초국적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데올로기 주변국이

나 반주변국에서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억압하는 효율적 기제로 작동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를 주장해야 한다.

가족이데올로기를 해체하라
가족이데올로기는 가족임금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
가족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한 과정으로
가족임금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상 가족임금이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현재 가사의 1차적 책임이 여성임을 강조하며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와 이중 노동의 고통을 주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해체와, 가사노동과 양육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

1) 정리해고 철회, 여성고용창출, 노동안정쟁취

현재 여성의 노동은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직에, 주변화된 곳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마저 빼앗기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의 지적처럼 현재 여성의 노동이 부차화된 노동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정리해고에서 여성을 그 1순위로놓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정리해고 그 자체가 명백히 노동자들의 입장과 반대되며, 민중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뿐이다. 이에 정리해고의 전면적인 철회를 주장한다.

실제적으로 여성은 노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비정규직을 택하거나, 이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많은여성들이 안정적이고 불평부당하지 않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여성고용을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단지 고용을 하고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노동에서 언제나 위협을 안고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하고싶을때까지 할 수 있는 노동안정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여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고용창출

고용 평등기구 건설지급의 여성들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단지 여성노동이라 말되어지는 미숙련, 중노동, 저임금의 노동을 위한 교육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겠다.

또한 그러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어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성차별적 고용형태에 의한 여성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여성채용에 직간접적인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정리해고의 물결속에서 여성에 대한 1차적 정리해고나 저임금 노동으로의 이동은 여성의 노동을 억압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감시하고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여성단체나 노동조합에서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기도 했으나, 인적, 재정적인 문제등에서 한계가 보이고, 노동조합에서도 여성들의 조직화가 낮고, 여성간부의 비율등이 낮으며 노동조합의 구조가 여성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했을 때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3) 여성에게 적합한 노동문화 창출

노동시장의 문화가 역시 남성중심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여성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다.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노동시장의 문화를 여성들이 그 문화속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역시 남성중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여성노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노동권의 문제와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속에서 현실 우리가 주장할 내용은 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와 현재 가해지는 노동에 대한 탄압의 본체이며 여성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문화의 마련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권익도 이룰수 있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이 요구되어진다.

4.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의 노동권 확보

현 신자유주의하의 가족이데올로기의 강화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고용에 있어서의 성불평등, 여성의 우선적 정리해고,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중심적 문화속에서의 배제등, 양성이 서로간에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성적차이에 기반한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주장한다. 이것이 성적 차이의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여대생 실업, 그 대책과 제언

작아지고 외로워진 가장들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하고 준비했다. 내가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 활용하고 싶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 일시적인 사회경쟁이 아니라 평생 지속할 사회노동으로 일하고 싶다. 나름대로 각오와 준비과정을 거쳤고, 알고 있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쁠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정리하고 계 전영남씨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순위로 탈락했고, 그나마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여성을 고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두들 내가 결혼하러도 여간 되지 않느냐고 말할 뿐이다. 언제나 보이는 것은 거대한 남성계 장이고 그들을 위한 대책뿐이다. 여성들, 나의 어머니, 언니,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 발족식 *성명*중 -

지난 2월 취업준비를 하던 한 여대생이 어려운 집안형편과 취업 낙방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극단적인 예라 할지라도 사회 첫출발을 취업실패라는 좌절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절망감과 불안감은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프랑스의 실업자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청년예비 실업자인 학생들이었다. 죽을 때까지 사회에 빌붙어 사는 무의미한 존재, 그 무력감에 대한 분노가 그들을 촉발시킨 것이다.

1. 여성노동권 어디로 가는가?



지난 수세기 동안 여성은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와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성노동권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는 한 번도 제대로

로 된 적이 없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불평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성들은 고용시장에서는 언제나 그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에게는 입사지원서가 그늘도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고, 남성과의 차별임금, 차별승진 같은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관행이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여성의 노동을 생계수단이 아닌 부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여성의 노동은 자아실현의 수단 정도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 가정이 20%를 넘고 있다는 현실만을 보아도 여성의 노동이 더 이상 사치와 자기만족에서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IMF 구제금융 도입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의 1순위는 바로 여성노동자이고, 이것들은 앞서 말했던 가부장제의

논리와 더불어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게끔 한다. 우리의 문제제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다.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작업장에서의 평등하고 안정된 고용상태를 원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고실업 사회'라는 아주 다른 사회로의 전입이다. 우리 사회의 고용 시장 상황은 이미 '완전고용'의 상으로부터 벗어났고, 이런 고실업 사회안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망 구축과 실업대책의 상이다.

1) 고용안정

현재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가장 큰 문제는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대량감원의 바람속에서 일제로 제일은행의 경우는 1220명 감원 중 1000명이 여직원이었다. 그리고 정규직을 박탈당한 이런 여직원들에게 강요된 것은 '임시직'을 다시 들어와 저임금으로 똑같은 일을 수행하라는 요구였다. 여성들의 경우 기존인 경우는 생계부양자(?)인 남편이 있으므로, 미혼여성인 경우는 생계를 부양한 가족이 없으므로, 라는 식으로 우선해고 1순위가 되는 실정, 사실상 가족생계부양자 1인의 모델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지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를 잘라내는 것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할당제의 적극적 도입과 강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규정은 거의 강제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국가에서 최소한 -%라는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작업장에 할당제가 도입되는 것과 이 것의

운용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감독과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군가산점 폐지

국방부에서 발표한 민간사업장에서의 군가산점 도입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성차별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선 어불성설일 뿐이다. 그러려면 여성이 담당하는 인적자원 재생산이라는 측면에 대한 가산점도 국가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군가산점은 여성배제를 위해 악용되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나마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원서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무임금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노동의 착취 속에서 똑같이 일을 해도 오히려 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는 각 단위사업장에서의 군가산점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 정보공개 청구

신규실업자인 (예비) 대졸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는 채용과정의 전과정(어떤식으로 점수를 매기나, 왜 나는 떨어졌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요구하며, 현재 취업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사를 해볼 수 있을 자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또 통계청에서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여성관련 실업통계(실망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한 수치 등)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요구한다.

● 여성근로감독관 증원

여성근로 감독관은 앞서 말한 할당제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현재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적 관행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후 이 것은 현재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위상(준사법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

1)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는 현재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 참가 단위는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 수원대 총여학생회, 서울여대 '날개달기',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이며, 2학기에는 99년 신규여성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글은 대학연대가 서울시 실업대책 간담회에 제출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2) 고용창출

우리가 제기하는 고용창출의 방법은 지금까지 얘기되어 오던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이나 무리하고 무계획적인 공공 근로사업을 확장하는 등 단기간 안에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상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원시안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가능하고 효율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비영리 단체를 통한 고용창출

우선 영리조직에서만 고용창출이라는 생각의 틀을 넘어 서야 할 것 같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비영리단체(사회단체)의 취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이제 사회단체에 대한 개념,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실업문제가 국민에게 이토록 엄청나게 느껴지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업이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만 했다. 이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권의 정책과도 충돌되는 부분이다. 정부와 국민은 서로 소통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기업과 정부로 구성된 두 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바로 사회단체의 육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단체의 활동이 더 나은 사회구성과 이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풍요롭게 한다는 의식을 가진다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현재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주로 가시화 되어있는 남성 노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의 가족에 관한 대책은 그들의 몫으로 그냥 남아있다. 노숙자들의 문제는 비단 주택 문제, 실업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결속력의 약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그 노숙자 부인들은 대개 매 맞는 아내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비영리 단체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기구 충원

지금 각 정부 단체들은 군살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있어서 감원의 무풍지대라는 공무원사회도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고실업사회라는 '다른 사회로의 진입'은 새로운 공공단위 필요인력을 철저히 요청하고 있음을 무시해선 안된다. 지금의 공공근로사업처럼 단기적 실업대책 이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할 노동/실업관련 행정력, 복지서비스의 행정력의 대폭적 증가가 오히려 지속적이고도 필요한 고용창출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공공단위(그 예로 미국의 고용평등기획위원회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수를 늘리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의 고용창출은 실업대책으로서 2중 효과를 낳는데, 하나는 고용안정을 감시/강화하는 기능의 확보이며, 또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측면의 인프라 확장

'기계화된 문명으로 21세기를 맞는 현대인'이라는 지금의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는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대치되어버린 인간 노동력만을 사고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창의력, 발상의 전환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의 인프라를 확장시켜내야 한다. - 서구 선진국의 패권, 특히 미국의 패권은 문화적 장악력에 그 공이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가 육성해내야 하는 인적 자원은 문화 인프라이며, 우리와 같은 실업자세대들에게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생존권의 확보이다. 따라서 문화 진흥지원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물적 가능성 제공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업구상

21세기가 요구하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그들의 인간적인 사고력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용창출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구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문화적인 부분이나 복지부

분 등 다양한 형태로 고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현재의 구인·구직 서비스가(현재 수요와 공급이 일치라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아닌, 젊은층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이것을 연결시켜주고 그 아이디어의 독자성을 보호 해 주는 사업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저작권 보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들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아이들만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형식이 그것이다. 이런 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문화사업같은 것이 가능하여 또다른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실업안정

실직 여성 가장 우선 고려

실업급여가 가구당 세대주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 부양자이면서도 가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다. 대체로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은 5인 미만의 사업장처럼 낮은 임금의 임시직, 영세직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런 직업은 해고 당하기도 쉬운 직종(현재 어떠한 안전망도 없는 상태이다)이기에 이들의 생활은 매우 취약하다. 이에 무엇보다도 실직 여성 가장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의 실업정책이 세대주 혹은 그에 상응한 자(사실 이 경우도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성인 남녀로 그 기준을 바꾸는 것과 또한 여성들이 대부분 고용되어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여러 혜택을 증가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실직 여성 가장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산업 육성과 실업대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업대책은 현실적이지 않다. 예를 들

어 한사람당 백만원 정도를 들여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약 3개월 정도 교육이 끝나면 다시 실업자의 신세로 전락한다. 또한 각급 대학교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도 한계가 있지만, 정작 대학의 주인인 청년의 실업문제는 대학에서조차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이들이 실업상태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고민할 수 있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들의 주 소비 부분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기획, 진행, 평가하여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일 안에서 자기 자신과 전체의 문화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더불어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관계없이 다수의 젊은 여성들은 일을 배우고 즐기며,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젊은 여성들은 평생의 직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유사한 문화적 이벤트를 벌이게 되고 이는 곧 문화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마지막



여성의 노동은 언제나 주변성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고용기회에서부터의 차별, 작업장에서의 역할분담, 임금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강제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의 실업문제를 정부 혹은 기업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노동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것은 남녀평등 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실업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지껏 배제되어 왔던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노동인구의 절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할 것이다.

한국통신 시외수동전화 교환 서비스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한국통신은 민영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국민서비스 사업중 시외수동전화 교환서비스(101, 107번)를 일방적으로 퇴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통신은 비수익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퇴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으나 이는 대국민서비스의 후퇴,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시외수동전화 발생호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볼 때 3백 56만 회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하루 10만 여명의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시외수동전화 교환은 1902년 처음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대표적인 대국민 공익서비스로서 장애인, 군인, 학생 등 긴급전화에 필요한 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왔고, 최근 들어서는 실업으로 집을 떠난 노숙자들에게도 긴급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외수동전화 서비스는 올해 통계만 보더라도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1월 3,071,011호, 2월 2,734,013호, 3월 3,109,343호, 4월 3,362,896호, 5월 3,563,599호) 처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을 정도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익성을 이유로 시외수동 통화서비스 사업을 퇴출시키기보다 인원을 증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공공기관인 한국통신의 역할이다. 현재 한국통신 노조는 시외수동전화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인원충원이 이루어진다면 흑자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수익성만을 따져 시외수동전화 서비스의 사업중단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외수동전화 교환서비스사업의 일방적 퇴출 조치는 대다수 종사자인 여성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시외수동전화 교환원으로는 228명의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여성가장이 3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귀 공사의 고위 관계자는 시외수동전화 서비스를 폐쇄하고 그 인원을 강원도로 발령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여성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미 공공부문 사업 구조조정은 노사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히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공공기업인 한국통신 또한 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우선되어야 한다.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 평범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를 정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권리는 없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시외수동전화 교환 서비스의 일방적 퇴출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외수동전화 서비스를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한다.

‘여성실업자 구직등록운동’을 선포하며...

모든 직종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취업자 수의 감소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98년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남성은 206천명 감소, 여성은 827천명 감소하여 여성이 전체 감소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97년 10월에 비해 남성의 취업자는 5.8%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12%로 남성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성실업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잃고 구직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잠재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신속하게 평등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실업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여성실업대책을 수립,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의 하나로, ‘여성실업자 구직등록운동’을 선포한다.

이 운동은 실직된 여성노동자들과 새롭게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적극적인 구직등록운동을 통해 정부가 여성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윤바로 시행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여성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규모와 추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의 통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는 여성실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낼 것이며,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성의 요구를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기능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여성실업자 구직등록운동’은 각계각층의 여성들과 연대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성실업자들과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로 당당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서로 북돋우는 과정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것은 엄청난 실업구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하는 그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울러 우리는 정부, 국회,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장기 실업상황을 예상하여 보다 장기적 안정적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하라.
- 여성실업자를 은폐하는 현재의 통계방식을 개선하고, 여성실업대책을 수립하라
- 부당해고와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라
- 빠른 시일내에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35시간으로 단축하라
- 감원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라
- 공공분야에서 획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복지요원 증원으로 여성고용 확대하라
- 고용창출사업에 실직 여성가장에게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라
- 5인미만 사업장 임시직 노동자들, 여성가장을 위한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 공공직업안정기능을 확대하고, 여성취업 알선장구를 확대하라
- 국방비절감과 고액이자 소득자에 대한 과세제도로 실업대책기금을 대폭 확충하라
- 5인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책을 수립하라
-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틀에 여성을 포함시키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취업난시대 풍경3



일상이 되어버린 성폭력에 대한 소고

- 학내 성폭력 설문지분석에 대한 단상 -



성폭력,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절망스러운 느낌마저 들게 한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시각들과 그리고 존재하는 무수한 편견들... 그러한 것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너무나 지리한 고통의 과정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 지리한 고통의 과정에 이젠, 우리 여성의 목소리로 성폭력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한다.

1.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역사에 대한 여성들의 답변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성기가 삽입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하에서 성폭력을 성관계로 사고하는 인식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기 삽입만을 성관계로 오인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기중심적인 성인식과 가부장적 권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성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부재한 상태 속에서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성에 대한 생각을 성기중심적인 신체접촉에 의한 행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여성의 성을 대상화된 주체성이 없는 성문화로, 남성의 성문화를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성기중심적 성문화로 만들어 버린다. 남성의 성은 우월하며 성관계에 있어 적극적이고 나아가 공격적인 것이 남성다움이라는 통념에 반해 여성은 성에 대해 무지하고 소극적인 것이 미덕이라는 상반된 생각은 인간적이며 조화로워야 할 성을 남성이 욕구중심으로 일그러뜨렸고 여성의 성적 자기표현이나 자기 결정권을 미약하게 만들었다. 즉, 남성 욕구중심의 성에서 여성의 성은 단지 남성욕구를 채워주는 육체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을 성기삽입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성을 단지 육체적인 측면으로만, 남성의 성에 대한 대상으로 여기는 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수많은 성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규정 또한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은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 회동,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생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모두 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설문지 통계상 많은 여학우들이 학내의 학회실, 강의중, MT나 뒷풀이 장소, 지하철, 버스 등 일상에서 성으로 인한 성적인 불편감과 정신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의 지배적인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편견들을 여학우 스스로가 내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남성적인 시각이 아니라 여성적 입장에서 다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2. 일상 속의 성폭력

학회실과 뒷풀이 장소, MT등에서 농담을 가장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여성을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사고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 강의 도중 교수들의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별정체성에 의한 여성 정체성에 의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과 학생회의 공개적인 행사 장소에서 성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내는 행사등이 실제로 설문지 통계상에서 학내에서 비밀비재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여학우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무감각해졌거나 무시한다는 답변은 과히 일상에서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언어적 폭력이나, 음담패설, 여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 여성의 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이 성폭력이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단언하건대 그것은 명확하게 성폭력이다. 우리는 성폭력을 성기삽입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며, 성폭력의 원인을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한 권력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은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문화적 폭력이다.

또한 설문 통계상의 수치를 보면 1~2학년의 여학우들보다 3~4학년의 여학우들이 성폭력 경험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학내에 존재하는 여성들이 잠재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3.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지하철, 버스안에서의 성적인 접촉으로 인한 성폭력을 당하지 않은 여학우들이 통계를 뽑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그 발생빈도는 너무나도 높다. 성폭력을 당한 횟수도 한두번이 아니라 5~6회 정도라는 것은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통계상의 수치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리를 피한다는 대응방법은 우리에게 생각할 지점을 제공하여 준다. 여자들이 때문에 지하철, 버스를 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며,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소유물, 대상화라는 지배적인 인식속에서 여성의 성은 자연스럽게(?) 침해할 수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은 여성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자리를 피하거나 무시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여성의 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가? 여성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다. 누구의 소유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여성의 신체와 육체는 여성 스스로의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다룰 수 있고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여성 그 자신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4.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당하지 않은 여성의 시각차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또하나의 현실과 거대한 벽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당하지 않은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이다. 실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그 폭력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은폐한다는 것이며, 당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공개화시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개인의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일상이 되어버린 성폭력의 현실 속에서 여성 모두는 잠재적인 성폭력의 피해자이다.

그러나 성폭력이라는 것이 피해 여성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폭력을 행사한 결과인가를 알 수 있는 답변인 것이다. 잠재적인 폭력의 피해여성들은 그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확히 안다고 하여도 실제 폭력을 당하였을 때는 무수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벽 속에서 침묵해야 되는 여성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인 순결 이데올로기로 인해 여성들은 늘 억압의 그림자로 달고 다니게 된다. 가부장제 유지를 위해서 부권을 사회적으로 정의하며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제도 가 창출되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남근 중심의 법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절과 남성들가늠이 협력의 한 사회적 지배체계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권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사회적인 권리인 것이다. 원시시대부터 통제된 여성의 성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기반으로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더욱 억압된다.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의 성이 강조되고 혈통의 순수성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여성의 순결과 정절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부계와 부권을 토대로 한 가족관계는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를 차별적이고, 성적 결합 또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게 한다. 성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성관계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구조에서의 성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남녀가 교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남성의 성적 소유권을 지켜준다는 것이고, 성폭력 피해 여어도 이와 같은 순결이데올로기의 다시 한번 피해를 받게 된다. 성폭력을 성관계로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일지라도 이미 자신의 몸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폭력 당한 것을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해서 순결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은 '남성이 주체이고 여성은 객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성중심의 차별적인 성관계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것이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5. 학칙제정의 필요성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학칙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학내의 성폭력의 심각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학칙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실물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아직 우리 모두에게 공백으로 남겨진 부분이다. 그러나 이젠 우리는 그러한 공백을 메꾸어 나가기 위해 한 걸음씩 '여성'이라는 집단의 이름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행한자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폭력을 행한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성이라는 매개로 더 이상 여성과 남성과 억압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학내에서의 여성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와 보장이라는 의미가 사회전체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일상이 되어버린 성폭력의 현시량 우리를 맡겨둘 수는 없다.

성폭력이 특별한 장소나, 특정개인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주위는 성폭력의 일상인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성폭력은 강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강간과 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강간은 성관계(성기 삽입)가 이루어진 것이며, 성희롱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물음에 성폭력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것이

다. 이렇듯 성폭력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리고 강간, 윤간 등 등의 수많은 또다른 개념들이 형성되고 있다. 성희롱과 강간의 인식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에 대해 단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는 사라지면서 피해자인 여성의 인권은 침해되어지고 만다. 성폭력을 단지 성관계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성인식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의 양에 따라 폭력의 기준과 그 처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전체적인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성폭력'에 또다른 기준은 필요치 않다. 폭력에 대해 모호한 기준들로 인한 또다른 폭력이 형성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단 한번의 폭력으로 평생을 그 폭력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죽은 것이다. 수많은 성폭력에 대한 언어의 남용은 피해자를 여성으로써만,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손해를 입은 또다른 손바닥으로만 바라보게 만들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폭력은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즉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생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모두 성폭력인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인 것이다. 그리하여 성폭력은 단지 성폭력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폭력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정할 뿐인 것이다. 하나되고 통일된 '성폭력'이라는 담론속에서 또다른 기준점없이 '성폭력'을 근절시켜내야 한다.

일상에서의 자/치/실/현 성폭력 학치제정

서울대가 후배여학생을 성추행. 물의를 빚은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9월 7일 한국일보

0. 들어가며...

대략 25만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어도 신고율은 고작 2%밖에 되지 않는 세계2위의 성폭력 국가인 한국사회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 대학사회 또한 성폭력이 일상화된 공간이다. 서울대 신정후 교수 사건을 계기로 크게 알려지게 된 대학사회내의 성폭력은 대상에 있어,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과 학생, 공권력과 학생이라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대상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안에 우리 대학사회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성원들 모두가 어느 공간에서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은 방어기제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의해 이를 사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일회적인 일로 인식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따라서 사건이 끝나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 힘을 잃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에도 계속 여러 학교에서 사건이 드러나는 현실을 볼 때 사건 중심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요망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사건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여부가 성폭력 자체의 해결여부로 인식되며, 성폭력 사건해결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 대부분이 사건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처와 고통을 혼자 감수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이에 96년 이후 성장한 여성운동단위들과 피해자의 용기에 의해 논의의 장이라는 햇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폭력이라는 공간 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커녕 왜곡되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었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수많은 여성운동조직이 건설되어 성폭력 근절을 중

심적인 활동의 일부분으로 인지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특히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건중심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고 성폭력이라는 문제제기를 함시 담보할 상시적 기구로서 18개 학교로 구성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학치제정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수원대 또한 연대회의 속에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내에서 성폭력 학치제정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성폭력 학치제정운동은 학내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성원들에게 실제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학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 여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 및

해결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사회의 구성주체들 사이에 회자되는 남성 중심적인 성담론을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의식지형의 변환, 그리고 나아가 사회 안에서 여성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학치제정은 진정한 자치규약으로써의 학칙제구성의 논의들을 학원사회 안에서 환기시킴으로써 나가서 학원자치운동, 대중운동을 견인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학치제정은 마땅히 사고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당위이며, 누구나 동의하는 성폭력 학치제정운동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하나는 성폭력을 우연한 개인의 문제로, 보수적인 윤리의 문제로, 여성과 정조의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과 행위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 근절의 목표와 의의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에서의 반대 혹은 주저하는 무기력한 대중 그리고 운동 그 자체이다. 이 두가지 문제점들은 현실에서는 운동을 짓누르는 완강한 권력관계 그 자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고 뿌리깊은 성폭력으로 현상한다.

성폭력 근절이라는 당위를 위한 운동이 또다른 성폭력으로 저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 학치제정운동은 시작해야만 된다.

1. 성폭력에 관한 담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관한 지배적인 담론은 성기중심의 남성 지배적이며, 여성 배제적이다. 때문에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의 관점을 확장하고 성폭력에 관한 성폭력적 담론을 해체하고 이를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성폭력 사건은 언제나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앞서 그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 인정될 것인지와 여부에 대한 논란부터 이루어진다.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동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폭력의 범위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한 까닭이다. 현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담론은 지극히 성폭력적이다. 즉, 성폭력을 객관적 기준(?)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편견으로 좁혀나가기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의 근절이라는 목표는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1-1. 성폭력은 우연한 개인과 우연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짓는 잘못된 담론들이 존재한다. 성폭력의 가해자 대상의 기준은 '노출이 심한 여성', '정숙하지 못한 여성, 조심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규정이다.

성폭력은 우연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은 그 구체적인 순간은 물론이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끊임 없는 공포와 고통을 안겨준다. 또한 성폭력은 어떤 일부의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몸,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여성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여성들은 각기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적 우위의 권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공통점으로 평생을 성폭력의 피해자로 살아가야 한다.

성폭력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가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폭력은 어떤 특정한 선천적 악인에 의

성폭력 학칙은
대학의 새로운 성담론을
사태적으로 옹호시킬 수 있다.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바는
전반적인 대학 공동체내의
성담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성폭력 자체의
근절을 주목적으로 한다.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은 극악한 사회가 수행하는 성폭력을 자신의 몸으로 현실화한다는 점이다. 성폭력은 성적 분할, 성적배제를 바탕으로 하는 현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 구조화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폭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이는 특정인들만의 우연한 문제로 고립된다. 이는 성폭력의 공론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중의 하나로 존재한다. 또한 어렵사리 공론화가 되더라도 그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피해자는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몸을 버린 여성'으로, 또한 가해자는 '극악한 범죄를 몸으로 현실화한 범인'으로 서 말이다.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함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는 더욱더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우연한 순간의 우연한 사건으로 결부 지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성폭력 자체를 온존시키는 대신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철저히 배제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1-2 성폭력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강간은 남성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정조를 파괴하는 범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정조관념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여성의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과연 '보호받을 만한 정조를 지닌 여성'이다. 이 속에서 성폭력은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 문화적으로 특수한 폭력이 된다.

정조라는 개념은 여성의 몸을 여성의 것이 아닌 여성이 귀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소유물로서 인식하는데 기반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그것이 여성 자신에 몸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소유한 공동체의 소유권을 침범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정조의 보호한 관점에서 성폭력을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의 지배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이는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을 정조를 상실한 여성으로 낙인찍으며, 영원히 성폭력의 피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정조의 보호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율권을 가진 당당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몸에 대한 권리 즉, 성적자기결정권의 상대방의 동의없는 침해 이것이 성폭력의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3 성폭력의 피해자는 모든 인간이며, 여성운동 주체 또한 모든 인간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여성이라는 공식을 성립한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중 남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현 사회의 폭력적 구조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성적 소수자들을 막론하고 전 구성원에게 차별적 박탈을 수행한다. 이러한 박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결코 없다.

더군다나 성폭력의 가해자의 경우 또다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성폭력을 행했다는 사실로 충분히 그의 인격과 탄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다.

따라서 반 성폭력 운동은 피해여성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차원의 운동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성적 분할, 성적배제를 바탕으로 성적압과 성폭력, 인간관계의 파괴를 구조화하는 현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며,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의 주체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성폭력은 명백히 폭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명백히 하나의 폭력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성폭력은 매우 특수하고 철저한 폭력이다. 어떠한 폭력도 그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다른 폭력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어떠한 폭력도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폭력은 다르다. 성폭력의 원인은 항상 여성의 무책임성으로 전가되어진다.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자는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서 외부의 끊임없는 시선 속에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성폭력을 폭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폭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그녀 혼자만의 일이며, 그 자체가 참을 수 없는 폭력이었음을 체험하는 것 또한 그녀만의 일이다. 성폭력은 그것이 폭력이기 이전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많은 수식어를 지닌다. 생물학주의의 남성이 성욕이 강하다는 속설, 데이트 강간,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편견, 여성의 'No'는 'Yes'라는 오해 등등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상황이 어떠한 간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간에 성폭력 그 자체에 대한 명확하고 정당한 평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의 입차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

나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면죄부가 돌아갈 수는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저해되어서는 안된다.

1-5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대한 차별 없는 반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성기가 삽입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기 중심적인 성인식과 남성 지배권력의 성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성에 대한 생각을 성기 중심적인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여성의 성을 대상화, 주체성이 없는 성문화로, 남성의 성문화를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성기중심적 성문화로 만들어 버린다. 남성 욕구 중심의 성에서 여성의 성은 단지 남성의 욕구를 채워주는 육체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수많은 성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규정 또한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간과 성희롱의 차이는 명백하다. 하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을 단지 성 관계로 인식하는 잘못된 성 인식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의 양에 따라 폭력의 기준과 그 처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리고 강간, 음간 등 수 많은 또다른 개념들이 형성되어 있다. 성희롱과 강간의 인식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에 대해 단순히 신체접촉의 많고 적음을 그 기준에 두는 것이다. 그 속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무시되며 피해자의 인권은 침해되어지고 만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의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것이 양적으로 구분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대한 차별없는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는 모든 운동의 출발점은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담론을 해체하고 성폭력을 구조화시키는 모순된 사회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성적우위를 차지하는 권력일 수도 있으며, 보수적 윤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에 반하여 성폭력을 여성의 언어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2.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의 의미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가지는 중요성은 단지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 억압에 대한 해석과 여성에게 해방적인 담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여성운동의 과제와 행동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만 아니라 대중운동의 측면, 자치운동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2-1.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세력화

성폭력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은 단순히 처벌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여성주의에 입각하여 성 억압과 불평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억압적인 남성 중심적인 성폭력의 지배 담론을 해체하는 과정과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담론의 재구성의 과정은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즉, 여성의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담론 재구성 속에서 여성권의 하나인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의 의미성으로 새

로운 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담론이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위한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학칙제정운동이 의미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새로운 담론은 구체적 문제들과 의미성이 형성된 구체적인 '장치'가 존재해야만 사회화되어 세력화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상징적인 형태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운동이며, 투쟁인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그 일차적인 주제와 조직이 여성단위이며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이 정의를 대중적으로 관찰시키고 그것의 근절을 목표로 하며 여성주의적인 방식을 지향한다. 이러한 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의 발전적 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2-2. 여성운동 단위의 세력화 및 대학사회 여성운동의 대중적 세력화

과거 주변적인 운동으로 존재했던 여성운동은 나름대로 전략과 독자적인 활동의 부재, 이론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그러한 취약한 운동지반 안에서 막 태동하려고 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사상적 지반(노동/통일이라는 중심운동)을 통해서 여성운동에 대한 성급한 재단과 가치절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학생운동과 주변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이 연대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모든 해계모니를 쥐고 있는 학생운동이 여성운동과 동등한 연대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시덥지 않은 일이었는가?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의 보이지 않는 불신과 여성운동의 고립성의 문제는 과적학생운동이 이념과 구조 속에서 잉태된 결과이다.

학생운동의 새로운 담론이 폭발되고 있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 주변운동의 활성화 과정과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모색의 과정을 진척시켜야 한다. 더욱이 여성운동은 가장 주변화되고 배제되어 왔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과거 학생운동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이것이 곧 위의 동일한 지향점을 향한 길인 것이다.

기존의 대중을 정치로부터 소외시켰던 기존의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기방식에 있어서 여성운동단위의 이전과는 다른 대중운동방식이 요구되어 진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소수의 입법투쟁이 아닌 대중의 집단적 정치회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대중운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2-3. 대학사회 자치실현의 과정으로서의 의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대학의 운영이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학자치의 실현의 한 과정으로 그 의미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반여성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내의 자치규약의 제정과 공동체 문화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운동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대중권력에 기반해 모든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며, 동공체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소통과 연대를 운용원리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과 현실화 과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3. 성폭력 학칙제정 그 가능성의 모색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 크다. 더욱이 그것이 여성운동진영내의 세력화로서 가지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학사회에서 이전까지 '자치'라는 부분을 억압에 대한 즉각적인 저항으로서 존재했던 부분을 끌어내어 학생 사회 안에서 '자치'의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성폭력 학칙제정운동과 같이 지속적으로 벌려내었어야 할 운동

을 급박한 정세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학생운동의 고립적 역사는 거부해야 한다. 또한 동원과 선동의 도구로 자연스레 쓰여왔던 '자치'라는 말의 퇴색해 버린 의미들을 지양하고, 대중의 집단적 정치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은 지금의 학생운동을 새롭게 모색하는 시기에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원대내에서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

98년도 1학기 동안 수대내에 성이라는 개념들과 성폭력이라는 부분들에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왔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연대회의와 함께 체계적인 실천적 모색의 송나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단위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문제제기들은 호기심으로 한 번쯤 바라볼 수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이고 일부러라도 물어두어야 할 문제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교당국의 경우 학칙이라는 때 갖길 수 없는 권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원대내의 학칙 전반에 걸쳐 비민주적인 부분이 존재하기에 수원대내에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아니라 수원대 학생회칙의 새로운 건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단위나 총학생회만의 사업이 아닌 수원대내 문제의식들을 담지한 모든 단위들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TV드라마 보면서 안티걸기

여성이 말하게 하라!

최근에 가장 인기있는 드라마를 꼽자면 얼마전 종영된 SBS의 <미스터Q>와 최진실과 김승우 등 모와 케스팅으로 주목을 받은 MBC의 <추억>, MBC뉴스의 시청률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역역한 공을 세운 <보고 또 보고>일 것이다. <미스터Q>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기업 드라마이고, <추억>은 어촌이라는 주제를 다룬 예능, 혹은 감성 드라마, <보고 또 보고>는 우리 나라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일 홈드라마이다. 그러나 이들 세 드라마에서도 공통점은 발견된다. 여성의 눈으로 보면 말이다.

타자화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다름이 존재한다. 그런데, 권력을 쥐고 중심에 존재하는 집단은 다른 이들을 타자화시킨다. 이때, 이들의 타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수많은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 고정관념은 몇몇의 단순하고 쉽게 기억할만한 특징들을 본질화하고 자연스러운 것들로 만들고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고 또 보고>에서는 '여성의 적은 여성'으로 재현된다. 검사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는 시어머니, 딸을 차별대우해서 딸과 갈등을 벌이는 어머니, 늙은 시어머니(사미자 분)와 며느리, 동창사이었던 두 여자들(박원숙과 김장숙) 온주역과 송미역의 김지수와 성현아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데 타자화된 집단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타자' 그들 스스로가 아닌 중심에 놓여있는 이들에 의해 수행될 때 이들의 싸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속좁은 이들의 아웅다웅'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싸움을 하는 이유나, 혹은 여성을 타자화시키고 있는 집단중의 하나인 '남성' 집단에서는 알 수 없는 '아웅다웅'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 드라마에서 남자들의 갈등은 거의 부각되지 않는다. 가정과 기업체간의 갈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온주 아버지와 명환이의 갈등 역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 집단에서의 싸움은 명확하거나, 큰 대의가 있어야, 즉 싸움만 한 가치 -악의 무리의 소탕이나,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헌신- 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스터Q>에서도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황주리는 한해원(김희선 분)을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다. -이 강토라는 남자 때문에- 황주리의 히스테릭한 모습은 한해원의 작품이 회사의 상품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 절정에 달하는데, 작품을 던지고 한해원을 때리고 상품의 정보를 타 회사에게 빼돌리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다. 그에 비해 남성들의 갈등은 -대외명분이 있는 듯- 회사의 강박을 둘러싼 사나이들의 경쟁, 전쟁이다. 여성들의 갈등은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지워지는 반면, 남성들의 갈등은 조직을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인 것이다.

<추억>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서인영(최진실 분)의 후배이자 직장상사인 오세경(박은영 분) 차장은 광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날, 서인영이 이미 광고로 나온 아이디어를 말하자, 오세경이 서인영에게 '취사다 나오셔서인지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며 창피를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를 들어간다. 오세경은 몇 년만에 다시 일터에 나오게된 서인영에게 기존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는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민부장과 서인영과의 관계를 계속 이해하면서 절투하고 은근히 못살게 구는, 부하직원을 감싸는 상사가 절대로 아닌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 이에 대한 서인영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로인데, 오세경의 심정을 이해하고 감싸안기보다는 부하직원이라는 약자의 입장 때문에 참고 넘어가 주지만 상종할 인간은 못된다는 투이며, 관계를 풀기 위해 서인영이 오세경을 만나 잘 지내볼 것을 제안하지만 결국 서인영이 오세경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충고를 함으로서 서인영 또한 오세경과 결코 좋은 관계는 형성하지 못한다. 항상 두 사람의 관계는 어렵고 별뿔하고 긴장감이 돈다. 사실은 그럴 이유가 그리 명확하지 않음에도 말이다. 즉 그들은 아무도 사실상 민형준(손창민 분)과 거의 어떠한 애정관계도 없었고 성립되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남성을 사이에 둔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더군다나 당당하고 똑부러지는 여성 오세경은 어느 드라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악녀의 캐릭터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여성의 적은 여성이요, 남성의 적도 여성이요, 남성의 친구는 남성이다. 서인영을 못살게 구는 것은 오세영이지만, 서인영을 도와주는 것은 민부장이고 한정우(김승우 분)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민부장의 상담자는 명계남이다. 여자들은 서로를 견제하려 하지만 남성들은 서로를 아낌없이 도와준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고민조차 동성에게 털어놓지 못한다. 그러니 결속하기도 힘들다. 남성들의 결속력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 남성은 여성없이 잘해내지만, 여성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친밀감마저도 남성과 함께하지 않는 한 여성은 사회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리적 존재인 남성/감성적 존재인 여성의 이분화, 그리고 합리적 존재에 대한 가치부여

이것 역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부각, 고정, 본질화되고 타자화된 집단의 특성을 일탈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속좁은 여자들의 행태를 평정하는 합리적 남성들이 등장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체의 화자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면, <보고 또 보고>에서 아들에 대한 집착을 병적으로 보이는 기정 어머니(김민자 분)에 대해 기정 아버지(이순재 분)가 타이르고, 회유하고 설득한다. 반면, 평하니 돌아서 있고, 말도 잘 하지 않는 기정 어머니 심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온주 어머니는 돈 못버는 남편에 대해 마구마구 비꼬아대고,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꼭 참아서 삭이는 남편이 나온다. 그러나 술을 마셨을 때, 이성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감정은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인간적인 존재로 보이게 한다.

<미스터Q>를 보면, 갈등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지만 남성이 모든 갈등을 푸는 열쇠로 등장하며, 한해원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강토(김민종 분)이다. 여성들은 일을 할 때 일의 중요성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한다. 외국의 여성비이어가 왔을 때 그 바이어



는 제품의 질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켰다기 보다는 이강토의 선물에 의해 중요한 체결을 하며, 한해원은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강토가 결정한다. 감성적으로 그려지는 여성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이성적인 남성을 결정하고 처리하며 항상 인정을 받는다. 사회의식이 이성(=남성)대 감성(=여성)으로 분류를 하고 한상 이성적인 남성에게 가치부여를 하는 방식이 <미스터Q>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남성들은 주용한 위치에 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능력은 항상 평가절하된다. 여성이 성공하는 경우는 돈돈한 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실 황주리 마저도 아팠던 황전무의 배경으로 디자인 실장이 된 것으로, 디자인과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 남자직원이 함께 일하는 곳에서 여자는 상급자일 수 없으며, 이성과 권위를 내세우는 남성이 뒷자리를 차지하는 일반론이 통용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억>에서의 합리적인 이성의 대명사 또한 남성이다. 여성들의 고민거리조차 남성이 해결해준다. 김주희(고소영 분)는 어쩌면 그렇게 친구 하나 없는지, 그 어렵다면 남자상사에게 자신의 아주 사적인 고민인 이혼남 한정호와의 관계문제를 상담하고, 그 상사는 어쩌나 잘 이해해 주는지 마음도 잘 받아주고 코멘트도 훌륭하다. 서인영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너무너무 잘난 민형준이 등장한다. 서인영은 항상 화내고 발발하고 신경질적인 반면, 민형준은 항상 온화하고 조용하고 합리적인 매너있는 사람인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중재자인 남성과 감성적이고 사고유발자인 여성, 누구에게 더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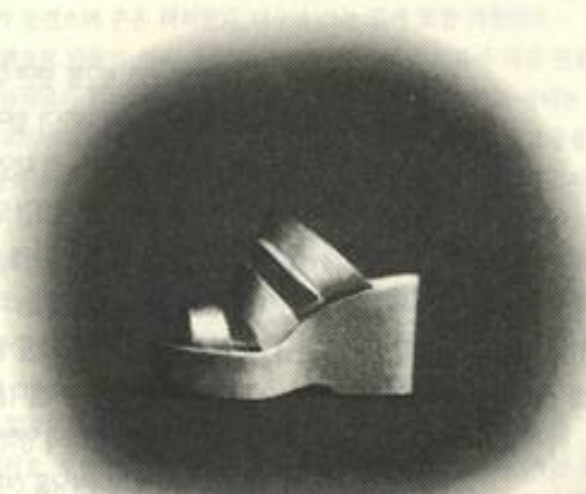
이 밖에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도 많다. 못생기고 뚱뚱해서 매력 없는 <미스터Q>의 오순심은 여성으로 쳐주지도 않는 회화화된 인물로 그려진다거나, <추억>의 한정호는 여러번의 매대춘을 하거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오히려 남성의 성욕은 자제될 수 없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그려지는 반면, 최진실의 성욕은 성욕이 아닌 곳으로 그려져 민형준과의 상관계후 괴로워하고 한정호에게 미안해하는데다 급기야는 불결한 여성으로 표현되어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최진실도 인정하는 듯한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적인 담론을 형성해 내고 있다.

만약, 서인영이 이혼이라는 과정속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 보다 여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서게 된다면,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하게 된 김주희와 여성적 동지관계를 맺고 오세경의 아픈 과거를 쓰다듬어 줄 수 있게 된다면, 온주가 시어머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인생을 개척하는 억척여성이 당해야 했던 고통과 억압을 공유하고 보듬어주며 진심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황주리가 상사로서 한해원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인정하고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모습을 지닌다면, 그래서 조금은 여성이 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들 드라마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신발을 소유하는 것에는
순결은 물론

앞으로 모든 행동, 생활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는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와 결혼해 신분상승을 꾀하게 된다는 이야기구조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반지도 아니고, 머리핀도 아니고...

신데렐라가 '구두'를 잃어버린 이유는

흑설공주 이야기



동화를 보면 계모를 보면 주로 사악한 인물로 묘사된다. 백설공주의 계모는 우선 백설공주보다 미모가 떨어졌다는 것에 분노했다는 점 두 번째는 마법을 쓸 줄 알았다는 점 때문에 악인으로 묘사된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백설공주의 계모를 악인으로 몰고간 두가지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남성의 성적 반응은 시각적 요소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여성의 미주는 사실 여자들보다 남성들에게는 더욱 큰 관심거리였을 것이다. 따라서 한 여성을 미의 등급을 매긴 것대의 논리 어딘가에 놓는 일은 아무래도 남성들의 아이디어인 듯 싶다. 여성들 스스로는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수천가지 다양한 유형의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여성들의 영적능력의 마지막 보루인 마법은 교회나 마녀사냥을 선포하면서 그 위상이 추락했다. (당시는 기독교 이전시대 여성체들의 후예인 산파, 간병인, 약조를 지배하는 여성 케온셀러 마법사를 마녀로 취급했다.) 따라서 왕비가 마법까지 갖고 있다면 정서적 영향력에 영혼의 권위까지 갖춘 셈이므로 질투심 많은 남성들에게 분명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왕비는 보다 사실에 가까운 인물로 재조명됐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머릿결은 칠흑같이 검은 흑설공주가 살고 있었다. 흑설공주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죽은지 얼마되지 않아 유명한 마법사와 재혼을 했다. 새 왕비는 젊은 공주의 아름다움과는 또다른 원숙미를 지닌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흑설공주가 매력적인 숙녀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특히 임금의 신 하였던 헌터경은 공주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헌터경은 왕실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고 있었으며 더욱이 흑설공주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있었다.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주와 결혼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외우고 있는 시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시와 왕궁의 정원에서 꺾은 아름다운 꽃을 공주에게로 보냈다. 헌터경이 보낸시는 자신의 성공을 갈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또한 헌터경은 왕궁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주의 댄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흑설공주는 어떻게든 그를 피하려고 했다. 흑설공주는 그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거대한 몸집에 피부가 거칠었으며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번들거렸다. 또 그가 숨을 쉴때면 악취가 풍겼으며 손은 더러웠다. 더구나 그는 말씨 또한 거칠었다.

헌터경은 왕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왕비의 심복이 되길 간절히 원했다. 그의 열망은 드디어 이루어져서 헌터경은 왕비의 신하로 임명되었다. 평소에도 왕비는 그를 관대하게 대해 주었다. 그가 아첨하던 것을 은근히 즐기던 왕비는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을 눈감아 주었다. 그러자 헌터경은 왕비의 속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채 왕비가 자신의 편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어느날 헌터경은 왕궁의 정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있는 흑설공주를 발견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는 모자를 벗어 경쾌하게 인사를 하고는 공주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긴 줄기에 달린 장미꽃을 공주앞에 내밀었다.

"사랑스러운 공주님!"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발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오랫동안 공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주님을 한여인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나의 사랑이며, 내 마음의 여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이며, 내 마음의 여인이십니다. 제가 공주님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결혼이라구요?"

흑설공주가 놀라서 소리쳤다.

"난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결혼할 사람이라면 늙고 못생긴 사냥꾼은 아니에요. 헌터경, 당신은 주체도 모르고 너무 높은 꿈을 갖고 있군요."

공주의 거절에 놀란 헌터경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난폭해지더니 한 손으로는 공주의 치마자락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공주의 손을 낚아챘다.

"공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그가 경망스럽게 소리쳤다.

“나야말로 귀하신 몸이란 말이오 당신이 공주건 아니건 분명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철없는 철부지 숙녀에 불과하오 아마 오늘 좀더 태워야 할 것같군.”

그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나고 놀란 흑설공주는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어떻게 감히 이런짓을... 당장 물러서요.”

그러나 헌터경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주는 간신히 팔을 비틀어 빼고는 손톱으로 헌터경의 얼굴을 핏겨 버렸다. 헌터경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그는 공주를 강제로라도 복종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공주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그녀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흑설공주는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치며 발버둥쳤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얼굴을 차고 사타구니를 걸었다. 헌터경은 고통으로 몸을 움크린채 숨을 헐떡거리면서 나뒹굴었다.

“다시는 내 근처에 오지 마세요. 일겠어요? 이 흉측한 괴물같은니라구!”

그를 향해 침을 뱉으며 그녀가 외쳤다.

“당신을 증오하고 경멸하겠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경멸에 찬 말을 남기고 흑설공주는 떠나가 버렸다. 혼자 남겨진 헌터경은 자신의 야심과 함께 모든 것이 철저하게 깃잡혀진 느낌이었다. 공주에 대한 헌터경의 욕망은 이제 적대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받을 모욕의 대가로 그녀가 다치거나 심지어 죽는 꼴을 보고 싶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던 것이다.

어느날 저녁 헌터경은 거실에 홀로 있는 왕비를 발견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왕비가 거울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말을 건넸다.

“왕비님은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거울에게 물어 보셨는지요?”

왕비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울이 뭐라고 이야기 할지는 다 알고 있소. 그야 바로 흑설공주이지.”

“화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야 하지?”

“이 나라에서는 당연히 왕비님이 당연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시기심 많은 공주가 왕위를 빼앗아 그 자리에 이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비가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하오. 헌터경 이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라고. 젊은이는 젊은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법. 그게 자연의 순리지요.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모두 뱃속에 서부터 이를 느끼지. 자연의 순리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오.”

“하지만 새엄마들은 언제나 전처의 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건 남자들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전통의 하나에 불과하오. 새엄마가 전처의 딸들과 잘 지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소. 왜 우리가 불필요한 분쟁에 말려들어야 하지? 난 흑설공주가 아주 좋소. 공주는 명석하진 않아도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지. 그런데 왜 내가 흑설공주를 구박해야 한단 말인가.”

“왕비님, 이런일은 사사롭게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헌터경은 왕비의 말을 가로 막았다. 그는 워낙 집착이 강했고, 왕비의 말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믿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계모인 왕비가 자기 대신 충직한 심복을 보냅니다. 사냥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전처의 소생을 죽인 뒤, 그 심장을 보석함에 넣어 갖고 올 임무를 맡을 사람 말입니다.”

왕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경은 정말 미쳤군.”

왕비는 낮은 목소리로 위엄을 갖추어 말했다.

“헌터경, 그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생각일세. 그런 생각은 빨리 머리속에서 지워버리는게 좋아.

그렇게 얘기했지만 왕비는 그의 생각이 굳어 있음을 눈치채고 흑설공주에게 위험이 닥치리라고 예감했다. 그날밤, 왕비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주문을 외워 까마귀 한 마리를 불러냈다. 새가 나타나자, 그녀는 악초를 태우며 말했다.

“너는 지금 당장 난쟁이 나라로 날아가 그 곳 여왕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 중 날세고 재주가 뛰어난 자로 일곱명만 내게 보내 달라고 말해다오.”

왕비의 말이 끝나자 마자 까마귀가 날아갔다.

사흘후, 왕비는 가발을 쓰고 대부리코를 붙인 뒤, 까만 망토를 입고서 난쟁이

나라에서 온 일곱 명의 사나이들을 만나러 여인숙으로 갔다. 그들은 투박한 나무탁자에 둘러앉아, 맥주를 통째로 마시고 있었다. 왕비는 망토자락에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의 온갖 보석들을 쏟아 놓았다. 이를 본 난쟁이들의 눈이 빛났다.

이들은 보석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이런, 굉장하군.” 난쟁이 대장이 말했다.

“왕비님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죽이라는 말 쯤만 아니라면요.”

“헌터경을 감시해 주게. 이게 그 사람의 얼굴일세.”

왕비가 헌터경의 얼굴을 그림으로 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흑설공주도 지켜봐 주게. 하지만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돼네. 여기 공주의 얼굴도 있네. 만약 헌터경이 공주에게 해를 입히려고 할 때에는 그 자를 체포해 요정나라로 끌고가서 평생 감옥에 가둬두게. 그대들의 여왕이 내게 신세진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해줄 걸세.”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난쟁이 대장이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차밍’이라는 젊고 잘생긴 이웃나라의 왕자가 흑설공주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신하들이 좋아했다. 그러나 헌터경만은 일체의 활동도 그만두고 혼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친구들은 그가 야위



고 말도 잘하지 않고 웃지도 않는다고 수근거렸다.

헌터경의 마음은 오로지 복수심에 사로 잡혔다. 그러다 보니 그의 난폭한 성격은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모욕을 당했던 그날 이후 그는 항상 흑설공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심지어는 밤에도 몇시간이고 공주의 침실근처에서 그녀를 노려보곤 했다.

차 명왕자가 도착하기로 한 바로 전날, 흑설공주는 자신이 에완전을 데리고 숲으로 소풍을 갔다. 공주의 행태를 엿보고 있었던 헌터경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몰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는 공주가 숲 속의 아늑한 빈터에 자릴 잡자마자, 뛰쳐나와서는 공주를 낚아챘다. 그는 공주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팔뚝 묶어 버렸다. 공주를 시중들던 하녀는 헌터경이 땅에 얼굴을 처박고 있으라고 명령할 때까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서있기만 했다.

"그만두지 못해요. 당장 성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어서!" 하지만 하녀는 수동적 태도로 복종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서 그저 와들와들 떨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팔뚝 묶어 버리고 말았다. 그는 몸부림을 치는 공주를 향해 칼을 들고 다가갔다. 그의 두눈에서 광기가 번득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공주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일곱명의 작은 사내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헌터경의 칼을 빼앗고 땅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 공주와 하녀를 묶었던 줄로 헌터경을 동동 묶어버렸다. 그런 뒤, 난쟁이 대장이 모자를 벗고서는 흑설공주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표했다.

"다시는 이자가 공주님을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자를 난쟁이 나라로 데리고 돌아가 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남은 여생을 그곳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참, 잘됐네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상해야 하죠?"

저항하는 헌터경의 고함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흑설공주가 말했다.

"저희들은 이미 왕비님에게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공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섯 난쟁이들은 동동 묶은 헌터경을 등에 짊어지고 대장의 구령에 맞추어 씩씩하게 사라졌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하녀는 소풍도구들을 챙기고 공주를 부축해서 성으로 돌아왔다.

다 음날 예정대로 차명왕자가 도착했다. 그는 정말 이름처럼 매력에 넘치는 왕자였다. 그와 흑설공주는 서로 반가히 맞이하였다. 이들은 곧 약혼했고, 일년도 안되어 곧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의 물러리는 왕비였다. 흑설공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새엄마의 선견지명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후 왕실의 젊은부부와 늙은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한편, 헌터경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채 평생 난쟁이들의 감옥에 갇혀살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왕비와 공주에 대해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내용과는 정반대의 글을 썼다고 한다.



“순결이냐 죽음이냐”

회교 국가에서는 결혼할 때 말 그대로 처녀가 아닌 신부는 불행을 물고 온다. 게다가 신부 아버지의 명예까지도 딸이 처녀냐 아니냐에 따라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그리하여 가족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어린 딸들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개인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마음 속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복종심만 지닌 채,

이슬람 세계의 처녀성: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초아의 피가 얼룩진 천은 회교 국가에서는 민속의 하나다. 그러나 콜마(Colmar)에 살고 있는 15세의 나즈미예 일립피나르(Nazmiye Ilkpinar)의 이야기는 민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준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터키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왔다. 어느 날 부모님과 친오빠, 사촌 오빠는 한밤 중에 곤히 자는 그녀를 갑자기 깨우고는 숲 한가운데로 끌고갔다. 그녀는 목이 졸린 채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며칠 전 마을 축제에 참가했던 그녀는 낯선 청년의 팔에 안겼다. 결국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그녀, 사춘기 소녀의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본능이 그녀를 죽음의 세계로 이끌었던 것이다.

처녀성, 이 말은 아직도 삶과 죽음 사이의 문을 의미한다. 최근 <이슬람 연애 백과사전>을 펴낸 정신분석가이며 인류학자인 알제리인 말렉 셰벨(Malek Chebel)에 따르면, 엄격한 회교 국가에서는 수천만의 어린 소녀들이 죽음의 가치와 맞먹는 처녀성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보는 서구 세계의 자유분방한 여성들의 모습과 자기네 나라의 엄격한 종교적 전통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살아야 하는지 혼돈만 끌어안은 채,

순결 증명서

회교 국가에서 처녀성은 여전히 터부시되는 주제다. 여성들은 처녀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결혼한 그 날까지 몸을 깨끗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는 아주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처녀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여성들은 단순명료한 단어로 사실을 자 새하게 언급할 뿐,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회교도들은 여성의 폐임에 대



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만, 처녀성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데, 이는 처녀성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마그레브 여성들>을 펴낸 신문기자 소피 베시스(Sophie Bessis)는 말한다.

이슬람 전문가 카미유 라코스트 듀자당(Camille Lacoste-Dujardin)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움직임들도 처녀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서구에서 불어오는 자유로운 바람과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되는 순결의 의무 사이에서 최근 여성들은 혼돈과 압박 속에 놓여 있다. 모로코나 알제리에서는 개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규들이 여성의 순결을 의무로 박 속에 놓여 있다. 모로코나 알제리에서는 개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규들이 여성의 순결을 의무로 박 속에 놓여 있다. 모로코나 알제리에서는 개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규들이 여성의 순결을 의무로 박 속에 놓여 있다."

드는 때까지도 '처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국을 버리고 떠난 28세의 리비아 여성 레일라(Laila)의 경우, 처녀성은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그녀를 따라다녔고 회교통합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었다.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은 일상 생활에서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어요."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15세의 나즈미에의 경우처럼 처녀성을 잃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희생되는 죄인(?)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심할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가족들의 폭력을 막을 법적 장치는 전혀 없다. 어린 소녀들이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친척들에게 당연하게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신문의 가십란을 읽어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소피 베시스는 말한다.

신문기자 얀 구드윈(Jan Goodwin)이 쓴 <명예로운 희생: Price of Honor>에는 그가 요르단에서 만났던 한 의사의 얘기가 들어 있다.

"우리 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침에 병원에 나가면, 남자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는 어린 신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신부가 첫날 밤에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막 파열 유무를 진찰받으러 남자 가족들이 데려온 것이다. 신부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얼굴을 수그리고 있다. 가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뻔하다. 우리 의사들이 그들에게 알려 주는 결과는 신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부는 죽음을 당할 게 뻔 하니까. 왜(?)가 돌통날까 봐 두려워하는 신부들 중에는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집에 질려 있는 그녀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가엾은 여성들을 위해 우리 의사들은 성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도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다는 등 그럴싸한 변명을 강구해야 한다."

피살과 자살

레일라는, "우리나라는 전통이 엄격하다. 결혼 전에 처녀성을 잃은 여자는 남자 친족들에게 죽을까진 당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오히려 알게 된 한 여성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그 여성의 오후는 동생을 방에 가두고 독약을 주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여성은 끝내 독약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아랍권 국가에서는 처녀성 상실을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이런 유형의 범죄 행위가 한동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라크-이란 전쟁을 계기로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후세인(Saddam Hussein)은 전통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그 결과 '몸을 잘못 놀린' 처녀의 피살 행위를 공공연히 조장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전히 그런 행위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면서 그 나라 여성들의 내면 세계와 생활을 토대로 <모래와 미이라의 여성들>을 쓴 레바논의 여류 소설가 한넌 엘 셰이크(Hannan el Cheikh)에게 있어 결혼 전에 순결을 잃은 처녀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만큼이나 희귀한 존재들이다.

"미혼여성들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 만약 순결을 잃는다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은 접촉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순결을 잃을 기회도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눈길을 주고받는 정도일 뿐이다. 어떤 소년이 자기의 얼굴을 훑쳐보려 한다는 짐새를 알아차린 소녀는 그 소년이 살지만 알다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때일이 바람에 미끄러진 것처럼 해서 슬쩍 얼굴을 드러낸다. 아주 짧은 순간, 소년은 소녀의 목덜미 선을 훑쳐볼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더 이상 발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여자 아이들은 항상 "조심해라, 엉덩이를 잘 지켜."라는 어머니의 말을 노래처럼 들으면서 자란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갖고 자란다. 여성들은 스스로 수줍음을 타고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한순간 한눈을 팔면 언제 유리그릇처럼 깨질지 모르는 약한 존재라고 느낀다. 체육 수업 시간에 자칫 처녀막이 파열되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신의 인생은 파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슬람 소녀들은 그래서 체육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30세의 알제리 여성 하키마(Hakima)는 리비아 여성 레일라처럼 남자 친족들이 옥죄는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고국을 등졌다. 그녀가 들려 주는 얘기는 소녀들이 처녀성에 대해 얼마만큼 강박관념에 억눌려 살아가는지 알게 해준다.

"어렸을 때 엄마는 내가 외자에 올라가거나 뛰어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어요. 여자 아이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부모는 그 아이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처녀막이 파열되거나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처녀막이 파열되었을 경우 의사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처녀막을 잃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나중의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어머니들은 우리 여자들을 두려움 속에서 키웁니다. 우리 엄마는 과부였는데, '조심해, 남자들 가까이 가지 마. 잘못하다간 오후들 손에 죽게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오후들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살 수 있어야 해.'라고 귀가 따갑게 강조했지요. 알제리를 떠나 처음 파리에 왔을 때, 그녀는 밤에 혼자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해했다. 그녀가 두려워한 건 강간에 대한 공포라기 보다는 처녀막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현재 결혼 한 그녀는 처녀막 공포에서 벗어나 무척 자유롭다.

저녁에 혼자 나가는 것도 이전 아무렇지 않다. 그녀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한 건 순결 보존이었기에.

수치심과 침묵

여자 아이들은 레일라의 말처럼 처녀성에 굉장히 집착하

고 있다. "세뇌 당하는 거죠. 어른들은 우리에게 순결한 몸으로 결혼해야 한다고,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고 늘상 주입합니다. 우리에게겐 외문의 여지가 없어요. 외국의 자유로운 여자들 얘기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세뇌와 침묵. 어머니들은 딸에게 몸조심하라고 귀가 따갑게 다그치면서도 실제 위험이 어떤 것인지는 제대로 말해 주지 않는다.

여자 아이들은 그래서 현실에 어둡고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회교 국가에서는 성 본능,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수치스런 주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금기가 소녀들로 하여금 의식, 무의식으로 성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만든다. 이는 최근 모로코 라바트(Rabat)의 소아과 의사 함다니(Hamdani) 박사가 실시한 연구 결과가 증명해 주고 있다.

백여 명의 젊은 엄마들에게 사춘기 때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 느꼈던 점을 물었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수치심을 느꼈다', '무서웠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진정한 여성이 되어 간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퍼센트도 안 되었다.



신혼 초야에 대한 어머니들의 무언급은 어린 신부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게 한다. 튀니지에서는 유일하게 성 상담을 하고 있는 사미라 함자우이(Samira Hamzaoui) 박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대개 강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제대로 된 성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는 산부인과 카운셀러로 수년간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여성 환자들의 성적인 어려움을 도와 주었다.

"성 행위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불감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어릴 적부터 남성의 성기는 여성에게 있어 재앙이라고 배워 왔기 때문이다.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도부터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첫날 밤에 그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자란 여자들에게는 남성의 성기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첫날 밤 원치 않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갖은 여자들은 원한을 품게 된다."

여성들의 성의 파괴 성적으로 억압된 사회에서 처녀성에 대한 강박관념과 자연스럽지 못한 첫 성 경험은 남성이 여성을 육체적, 심리적으로 파괴하는 메카니즘으로 변모한다. 말레 세벨 박사는 <후궁의 정신>에서 "남성은 아내에 대한 완 전무결한 권위, 강력한 지배를 경험할지 모르나, 여성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남편을 통해 풀지도 모른다."고 썼다.

첫날 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어지는 은밀한 음모... 토끼피와 처녀막 재생 수술 엄격한 사회적 통제 하에서 불안에 떠는 여성들. 이런 비극적인 이슬람 사회의 이면에는 불행한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관용적인 움직임이 은밀히 존재한다. 통속 드라마처럼 산부인과 병원에서 입수한 '처녀 증명서'를 제시하는 악아빠진 신부들이 있다.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는 그나마 여성들에게 그런 관

용이 허용된 나라들이다.

레바논 여성의 말을 들어 보자.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소녀들에게 다른 회교 국가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상상력이 풍부했고 생존 본능도 강했다. 처녀성이 요구되던 시절에도 순결을 잃은 신부들은 첫날 밤에 속임수를 썼다. 면도날로 넓적다리를 베어 피를 내거나 작은 병에 토끼피를 담아 놓았다가 그걸로 이부자리에 피흔적을 남겼다. 현재는 처녀막 재생수술도 많이 시행된다. 물론 속임수이지만 우리나라 여자들은 동물 같은 생존 본능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줄 안다. 그런 눈가림으로도 명예를 지켜야 하니까. 처녀막 재생수술로 우리의 삶은 이어진다!"

모로코는 어린 여자 아이들의 자유로운 욕구와 엄한 전통이 강하게 맞서는 나라다. 담배를 피우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은밀한 사랑을 즐기던 처녀가 처녀막 재생수술로 조선한 처녀가 되어 다른 세계로 능숙하게 옮겨간다. 모로코에서는 처녀막 재생수술이 만연하고 있다. 카사블랑카에서 규모가 작은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운영하는 수미야(Soumya)는 성적 자유를 외치는 여성이다.

"우리 여자들은 대개 성을 즐기지 못하고 가족의 압력에 짓눌려 살아야 혼전 성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산부인과 병원으로 몰려가지요. 약혼자와의 합의 하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구 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은 어느 커플의 애인데, 가족과 아무런 마찰 없이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이 두 사람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병원을 찾았어요. 이런 눈가림은 많아요. 산부인과 의사들도 입을 다물지요. 처녀막 재생수술로 여자들은 고비를 넘기고 진실은 가려진 채 묻혀 버리지요. 아내나 남편 모두 거기에 대해 얘기하지 않구요. 대개 남편들은 아내가 처녀막 재생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는 속임수를 써서 가정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만, 이진도 박일지 모르죠."

그래서인지 30세가 되도록 혼자인 노처녀 수미야. 그녀가 자신의 욕심대로 독립적인 상태를 계속 지켜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전통은 유지된다. 모로코와 튀니지에서는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코란의 의무사항 '나파파(nafaqa)'가 퇴색하고 있다. 대학에서 공부한 여성들이 직장 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생계가 더이상 남자들만의 책임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이자 사회학자인 파티마 메르니시(Fatima Mernissi)가 라바트와 카사블랑카에 사는 1천 명의 젊은 남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가 최근 <아프리카 잡지>에 발표되었는데, 응답자의 70퍼센트가 가정 경제를 위해 아내가 직업을 갖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결국 현대적인 남자들은 남녀의 역할을 고정시키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깨부술 자세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현대적인(?) 남자들조차도 여성의 처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의 개념에 집착하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70퍼센트가 여자는 처녀성을 꼭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결국 '사회는 진보하지만 전통은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여자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녀막 이 파열될지도 모르는 행동을 삼가며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판 난장을 만들자! 푸하하하하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옆에 앉아있는 예쁜 여자를 계속해서
몰래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블라우스에 푸른 물방울치마를 입은
섹시하면서도 지적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다음 역이 가까워지자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이야기했다.
"이제 그만 옷 입혀주시죠. 전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거든요."



슈퍼맨이 항상 팔뚝을 끼고 있는 이유?

바지에 주머니가 없어서.
바지에 주머니가 없는 이유는?
바지위에 팬티를 겹쳐입기 때문
그렇다면 원더우먼이 항상 뱅뱅 돈 후 변신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고추먹고 엠-엠-

확줄게 있어야지

한 여대생이 있었다.
그녀는 중간시험때 답을 하나도 쓰지 못했다.
학사경고의 고비까지 이룬 그녀, 결심을 하고 담당교수를 찾아갔다.
"교수님, 잘 좀 봐주세요. 재시험 안될까요?"
교수는 여대생의 은밀한 곳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글쎄 곤란한데... 뭐가 있어야지 잘 봐줄 것 아닌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답안지를 보고 학점을 주냐. 안그래?"
그러자 감을 잡은 여대생이 자신의 치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교수님,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악몽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저는 매일 밤 10명의 여자와 무인도에 갇힌 꿈을 꾸니다."
의사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어떤데요? 악몽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이보시오, 의사양반. 그럼 여자 열 명을 위해 밥솥으로 밥하고 빨래하는 게 악몽이 아니고 뭘니까?"

질투

김모양은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남학생들이 김모양의 입술을 가지고
계속 놀리는 것이었다.
창피하고 속상해서
립스틱을 지워버린 김모양.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학교에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참견장이 어설픈 터프가이 박모군이 말했다.
"너 입술이 그게 뭐냐? 쥐잡아 먹었냐?"
김모양, 화심의 미소를 짓고 최대한 애교스럽게 대답했다.
"아이- 예는- 넌 쥐한테까지 질투하니?"



목 감 아

박인혜(극작가)

“화영아! 문 열어. 예, 열은 못 열어?” 딸의 방 문고리를 잡고 흔들던 민숙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고 만다. 딸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근 지 벌써 한시간 제다. 문을 툭툭 두드리고 사정해도 화영이는 꼼짝 않는다. 가끔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화영아! 엄마가 학교에 간 건...” 다시 설득해 본다. 대답이 없다. “니가 어떻게 했길래 그 놈들이 건드려...” 화도 내보지만 소용이 없다. 열쇠로 따고 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화영이가 스스로 문을 열어야 문제가 풀린다고 믿는 민숙은 참고 기다리기로 한다. 민숙이 딸의 학교에 가서 소동을 부린 건 일기장 때문이었다. 화영이가 학교에 간 뒤 모처럼 만에 이불 뽕뽕을 하려고 딸 방에 들어 갔다. 침대 카바를 벗기는데 손에 잡히는 게 있었다. 카바 속에 숨겨놓은 딸의 일기장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밖에 안된 게 벌써 사춘기인가 보라며 무심코 일기장을 넘기던 민숙은 깜짝 놀랐다. 5학년 왜서부터 쓴 일기 대부분이 자기를 괴롭혀 온 남자애들의 이야기로 눈물자국과 영진 채 적혀 있었다. 어제 일기에는 남자애들이 학교 뒷산에 끌고 갔다는 이야기와 어떤 오빠가 옷을 벗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고싶다는 말만 이 일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숙은 정신이 없었다. 무작정 학교로 뛰어가 담임을 만났다. 화영의 일기장을 보여 주며 딸을 괴롭혀 온 남자아이들을 혼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십이 다 된 남자 선생님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형식적으로 남자애들 몇 명을 불러다가 물으니 모두 모르는 일이라며 도망을 쳤다. 담임은 짓궂은 남자 애들이 장난을 친 것 같은데 화영이가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화가 난 민숙이 교장실로 뛰어가 따졌다. 민숙의 갑작스런 항의에 놀란 교장은 진정하고 잘 해결해 보자는 소리가 되돌아왔다. 얼굴이 벌개져 쫓아 온 담임 뒤에 놀란 토끼 눈이 된 화영이 서 있었다. 민숙을 본 화영이 울음을 터트리며 뛰어 갔다. 민숙은 속이 탔다. 딸을 뒷산으로 끌고 간 남자애들 이름과 옷을 벗긴 오빠라는 예를 알아내야 했다. 그 애들 이름을 알아내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는 교장과 담임의 설득에 딸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고 집으로 왔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딸 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는 교장 말이 민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딸가진 죄가 이런 건가...” 어떻게 하는게 딸을 위하는 건지 갈등이 됐다.

“화영아, 누구니? 남자애들 이름 좀 대봐.”

화영인 여전히 말이 없다. 울음 소리만 더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민숙은 딸의 문앞에 쭈그린채로 고민에 빠진다. 흐느끼던 딸도 잠잠하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문간에서 뭐하는 거야.” 일찍 퇴근한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 민숙을 바라본다. “당신 오늘 화영이 학교에서 난동 부렸대며...” 양복을 벗어던지며 남편이 계속 중얼댄다. “애가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남자 애들이 건드려...” 민숙이 남편을 쏘아 본다.

“하긴 지메미 닮아 풀죽은 나물 마냥 하고 다니니... 도대체 집에서 뭐했어. 예 하나 간수 못하고” 남편은 계속 민숙을 나무란다.

“화영이가 뭘 어쨌다 그래?... 이놈들을 가만 안들꺼야.” 왔다갔다 하던 민숙이 전화기를 든다.

“왜이래?” 남편이 전화기를 뺏는다. “당신 미쳤어? 뭘 잘못했다고 경찰에 알려?”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뛰는 민숙을 말린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 버린다.

‘저 인간도 똑같아!’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 한 민숙은 새삼 남편한테서 적의를 느낀다. 친구 오빠를 짝사랑 하던 어느날 사내에서 집요하게 따라 다니던 남편한테 끌려 간 여관에서 강제로 몸을 섞고 화영을 임신 하자 민숙은 결혼을 결심했다.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는 마음과 혼자서 애 키울 자신도 없었기에... 결혼한 지 십년이 넘게 살면서 가끔 억울한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람 한 번 안피우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보며 마음을 고쳐 먹었다. 가끔 민숙을 팔아 댈까는 것만 빼면 편찮은 남자 만 났다고.

헌데 오늘 남편은 딴 사람으로 보인다. 결혼 전 민숙을 강제로 덮치던 살기가 느껴진다. 민숙은 소름이 끼친다. 미친 듯이 딸의 방문을 두드린다.

“화영아,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 문 열어 봐.”

“싫어. 엄마도 똑같아.” 모처럼 만에 딸이 방문을 긁으며 울부짖는다. 민숙이 방문에 입을 바짝대고 소리친다.

“화영아, 엄마 말 들어 봐. 엄마도 너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순간 화영이 울음을 그친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화영이 민숙한테 와락 안긴다. 떨리는 소리로 화영이 말한다. “엄마 난 아무 잘못 안 했어.” “그래, 화영아. 엄마 널 믿어.” 엄마와 딸은 부둥켜 안은 채 말이 없다.

오래도록 서로의 눈물이 마를때까지 안고 있다.

다음날 민숙은 화영과 함께 경찰서를 향해 갔다.

이반이 소개하는 여성학 커리

■ 나, 너, 우리 - 동문선 문예신서

휘스 이리가라이
박정오 옮김

이리가라이는 평등주의적 관점이 아닌 성적 차이의 관점에 입각해서 성을 바라본다. 자연적인 성과 문화적인 성의 이분법적인 논쟁지판을 벗어나 자연에서 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다. 계급투쟁 이래로 남성중심의 계보에 의해 여성이 대상화, 상품화되었던 것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들 사이의 유대를 강조하고 성별화된 권리로서 여성권(치녀권과 모권)을 주장한다. 바람직한 사회의 상으로 성적 차이가 무시된 획일화된 성문화가 아닌 여성의 문화와 남성의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 현실문화 연구원

제프리 웨스
서동진, 채규형 옮김

'성정치학'의 대표적인 입문서. 여기서 Sexuality는 Sex와 Gender를 뛰어 넘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이 책은 성을 자연적 소질이나 선천적 본능, 초역사적 본질로 보던 기존의 성담론을 부정하고, 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물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성과학 등의 근대적 과학이 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정하는지를 물론, 성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제도가 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핀다.

■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 문예마당

서동진

여러 글을 묶어 놓은 책으로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가 총론격의 글이다.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이성애중심주의의 보편성을 상대화하는 것과 성인중심의 성의 보편성을 상대화하는 것. 성기중심의 성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그는 성을 다양한 권력관계 속에서 구성되어진 담론의 역사로 파악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강제적 이성애제도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성적인 정체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탄압한다고 본다. 특히나 보수화가 강화되는 파시즘적 세기말에서 이성애 중심의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 동성애자해방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 섹스북 - 박영출 출판사

Gunter Ament
이용숙 옮김

성을 매우 자연스럽게 써 놓은 성교육 교과서. 하긴 너무 자연스럽게 써 놓아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독일에서는 70년대부터 이미 대중적으로 읽히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순결교육'을 운운하는 진부한 내용이 나 교실 뒤편에서 은밀히 돌아 다니는 '빨간 책'의 내용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지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출판법상 미치 실리지 못한 몇 장의 사진이 안타깝다.

■ 18센티 여행 - 회성

데이비드 루벤
김명숙 옮김

저자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성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관과 성기능, 그리고 남녀간의 성관계에 대해 생리학적인 지식을 동원해 잘못된 통념을 반박한다. 그밖에 최음제, 발기부진, 불감증, 남자 동성애, 자위 등도 다루고 있다.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재미있는 비유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 현실문화연구원

김진승, 김수기, 서동진, 성서경, 엄희현
현실의 성과 결혼, 가족 등에 관한 솔직하고 파격적인 분석 글을 모아 놓았다. 문화적으로 성을 접근할 때 도움이 된다.

■ 성의 역사 - 김영사

레이 탄나힐
김광안 옮김

문명이 싹트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성적 관습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제까지 간과되어 온 여성의 역할과 지위 변화에 대한 역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 일그러진 성 문화 새로 보는 성 - 동아일보사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한국 사회 성문화의 실상을 기반으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순결, 피임, 낙태, 성폭력 등의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과 성행동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다. 대안적 성문화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새로 쓰는 성 이야기 - 또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문화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억압과 소외, 그리고 해체 현상을 치밀하게 파헤치고 있는 성문화 종합 비평서. '정겨운 육체를 다시 찾는 것이 곧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고나 통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성에 대한 봉건적인 무지, 타자화되고 소외된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설들과 성과 사랑의 신화와 허상을 분석하고 성과 사랑에서 주위되기를 강조하는 체험수기, 콩트, 영화평 등이 실려있다.

■ 성폭력의 역사 - 일월 서각

수잔 B. 밀러

역사적인 기록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온 성폭력 실태를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을 예로 들어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졌던 성폭력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전활동의 절차로 이용되었음을 밝힌다.

■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 현실문화연구원

조주현 김정희 외

결혼에 대한 신화와 통념, 그에 대한 획일적 찬양에 문제를 제기 하는 책. 결혼과 행복이 동치되는 이데올로기 비판, 결혼제도의 역사성, 결혼문화, 대안적 공동체, 이혼, 혼전 성관계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들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가 개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제도 속의 개인 역시 제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창조적인 개인'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가족은 반 사회적인가 - 여성사

미셀 바렛, 매리 메킨토시
김혜경 옮김

위 질문에 대한 저자들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 책은 안정과 보호의 상징인 가족이 사회 전체적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반사회적 통성을 갖는 기구일 수 있다는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가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이상 가족과 사회와의 대립적인 이분법이나 특정 형태의 가족만을 옹호하는 편협함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여성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 현실문화연구원

G. 스타이넴
곽동훈 옮김

그야말로 '공상'일 뿐일 수도 있지만 현실의 성차별에 대하여 뒤집어보고 있다. 그저 재미있게 보고 넘기기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80년대 미국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 흠이긴 하지만 90년대 말 한국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다지 낯설지도 않다. "남자가 멘스를 한다면...", "성기에 가해지는 범죄" 등에서 저자의 재치를 볼 수 있다.

■ XY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 민맥

엘리자베트 바덴데
최 석 옮김

가부장제적 가족 제도의 피해자는 여성뿐만이 아니다. 남성성에 대한 근거없는 믿음과 과장. 이로부터 양성의 차별과 분리가 나타났고 우리는 모두 이런 성적 억압 구조의 희생자이다. 이 책은 남성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양성간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강한 남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페미니즘 사상 - 한신문화사

로즈마리 톰
이소영 옮김

여성학의 조류를 정리해 놓은 책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부터 최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까지를 각 조류의 연관성과 비판들을 고려하며 정리했다.

각 이론의 배경철학과 사상 등이 요약되어 있으며, 각 이론의 주된 논쟁지점들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 이론에 대한 비판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 상세한 학습을 할 수 있다.

여성이야기

비리노
그날 이후



이 비리노는 페미니즘에 대해 귀족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성심을 긍정하는 즐거운 반란!

수원대 여성주의 모임에 함께 할 친구를 찾습니다.

보여지는대로 살기보다는 보여주려고 사는 것.

나의 시각에는 나조차도 억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비뚤어진 잣대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각에 대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학번,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녀의 성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해체하고 다시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그리고 연락주세요.

TEL: 226-2432. 학생회관 2층 '이반' 층여

제1회 여성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불편함, 즐거움, 불만 또는 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로 쓰시면 됩니다.

시·소설·수필·수기 등등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글쓰기'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제한없이 쓰시면 됩니다.

